

넷마블, 웅진코웨이 품으면 '구독 경제' 신사업 나설 듯

넷마블 vs 베인캐피탈 2과전 '현금 동원력' 양사 우열 없어 '절실함'이 인수 성패 가를 듯 넷마블 의지에 시장 무게추



국내 생활가전 1위인 웅진코웨이의 인수합병(M&A)을 놓고 국내 게임사인 넷마블과 외국계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이 2과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주조에 드러날 최종 인수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선 넷마블에 한 표를 더 주고 있다. 사모펀드에 버금가는 현금 동원력은 물론이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절실함이 더 크기 때문이다.

웅진코웨이를 가급적 많은 대금을 받고 빨리 매각해야 하는 웅진그룹 입장에서선 '돈'에 우선 순위를 둘 수 밖에 없지만 '절실함'이 배팅 규모를 키워 경쟁자인 PEF를 뛰어넘을 개연성이 이런 관측을 가능케하고 있다.

시장의 예상이 들어맞을 경우 이번 M&A는 게임회사와 생활가전회사의 '첫 융합'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글로벌 M&A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인캐피탈의 저력도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 과정에서 만만치 않

게 작용할 것이라 시작도 있다

게다가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 웅진코웨이를 6년 만에 사들였다 1년도 안돼 다시 M&A 시장에 내놓을 수 밖에 없는 뼈아픈 결정을 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만에 하나 향후 '코웨이'를 다시 인수할 것이라고 마음 먹고 있을 경우, 같은 값이라면 넷마블보다 베인캐피탈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도 있다. PEF는 통상 수 년후 인수 회사를 재매각해 차익실현에 나서기 때문에 윤 회장 입장에서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웅진코웨이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지난 10일 마감돼 넷마블과 베인캐피탈이 참여한 가운데 빠르게 이번주 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웅진코웨이 매각 주관은 웅진그룹이

올 초 MBK파트너스로부터 코웨이를 인수할 때 1조6000억원의 거금을 대준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다만 한투증권은 그 사이 인수금용으로 주선한 1조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코웨이 매각후 웅진그룹으로부터 5000억원만 더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시장이 베인캐피탈에 비해 넷마블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이유는 이렇다.

우선 넷마블은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다크호스로 등장했다.

넷마블은 당초 웅진코웨이 인수후보군으로 떠올랐던 SK네트웍스, PEF인 칼라일, 중국가전사 하이얼 컨소시엄 등의 이름이 오르내릴 당시에도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다 본입찰 과정에서 해성같이 나타났다. 일부에선 흥행 실패를 우려해 웅진그룹측이 넷마블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매출의 70% 가량을 벌어들이는 등 국내 게임업계 '빅 3'인 넷마블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웅진코웨이를 타깃으로 삼고 스스로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을 가능성에 무게

가 실리고 있다.

실제 넷마블은 본입찰 마감 당일 발표문을 통해 "실물 구독경제 1위 기업인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참여기로 결정했다"면서 "(웅진코웨이를 인수해) 자사의 게임 사업 노하우를 접목, 스마트홈 구독경제 비즈니스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게다가 넷마블은 시장에서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는 이번 웅진코웨이 M&A에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뛰어 들었다. 돈줄 역할을 하는 재무적투자자(FI) 등 파트너가 필요 없다는 방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넷마블이 시장가치만 10조~12조원에 달하는 넥슨 인수전에도 뛰어 들었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현금 보유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M&A에 참여해 일부는 성공한 예를 보면 이번 웅진코웨이 인수 의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넷마블은 지난 2017년 초 모바일 게임사인 미국 카밤 밴쿠버 스튜디오를 약 1조원에 사들인 바 있다. 직전년도에는 이스라엘 게임사 플레이어타카 인수전에 참여해 4조원을 썼다가 고배를 마신 경험도 있다.

특히 넷마블은 IFRS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말 현재 현금만 1조5500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넷마블의 현금 보유 규모가 올해 말 2조원, 내년엔 2조5000억원 가량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넷마블내에서도 웅진코웨이 인수를 위한 자금 베풀에는 상당히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미국계 베인캐피탈이 웅진코웨이를 품에 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4년 당시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된 베인캐피탈은 글로벌 10대 자산운용사로 지난해 SK하이닉스와 손잡고 도시바를 인수하면서 국내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도시바는 베인캐피탈이 49.9%, SK하이닉스가 15%의 지분을 보유, 베인캐피탈이 대주주다. 현금 동원력은 물론이고 오랜기간 M&A 시장에서 쌓아온 수많은 노하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편 이처럼 웅진코웨이 M&A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갈길 바꿨던 웅진그룹에는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증권시장에선 이를 인식한 듯 지난 11일 웅진코웨이의 대주주인 웅진씽크빅과 웅진그룹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넷마블 주가는 같은 날 3.53% (3400원) 빠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의 '우공이산'... 46만톤 돌 옮겨 "공유경제시대, 빅 디자인으로 부가가치 창출"

방글라데시 항만건설용 사석 馬聯서부터 '2300km 대장정'



CJ대한통운이 중량물 전용선으로 사석을 운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방글라데시에서 현대판 '우공이산(愚公移山)'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물류를 통해 한국 물류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말레이시아 판타이해안에서 채취한 돌(사석) 46만톤(t)을 약 2300km 떨어진 방글라데시 파타리리 인근 지역에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용 항만 부지로 옮기는 대형 물류 프로젝트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측은 '우공이산'이 아닌 'CJ대한통운이 산을 옮긴다'는 의미로 '통운이산(通運移山) 프로젝트'로도 칭하고 있다.

항로 준설과 토지를 매립하는데 주로 쓰이는 사석의 무게 46만t은 평균 6t의 아프리카코끼리 7만6000마리와 맞먹는 무게다. 부피로는 31만5000㎥로 15t 트럭 3만1000대 분량이다. /김승호 기자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 소비자의 미래경험 디자인 강조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이 12일 IF2019의 IF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빅 디자인은 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점과 점을 이어가는 선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호텔을 크게 만드는 산업 시대용 인터컨티넨탈보다 줄긋기로 성공한 에어비엔비가 세계 1위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창업자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두 젊은이입니다. 두 학생이 만든 회사가 호텔과 같은 영업을 하지만 호텔은 하나도 없는, 점과 점을 연결한 사례입니다. 이런 디자인 중심 줄긋기를 통해 신사업모델을 찾는 것이 빅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공유 경제의 시대, 미래의 디자인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주제로 IF2019의 'IF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기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영세 회장은 아이리버 MP3, 에니콜 가로보능,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을 디자인했다.

김영세 회장은 장식 수준에 머물렀던 지금까지의 디자인인 스킨 디자인이 'To Know how to design'이라면 빅 디

자인은 'To Know what to design'이라고 정의했다. 김 회장은 "기술을 포장하는 것이 디자인이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 디자인"이라며 "빅 디자인은 빅 데이터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디자인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력은 상상력에서 나온다"며 "소비자의 미래 경험을 디자인하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주최한 IF2019는 12, 13일 양일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스타트업 거리 축제다. '미래를 상상하다(Imagine Future)'는 뜻을 가진 IF 축제는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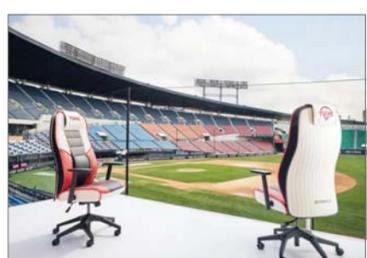
해 3회를 맞았다. IF는 외부에서 잠재 고객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가는 축제다. 올해 IF 축제에는 100여 개의 스타트업과 영국·오스트리아·프랑스·호주·에스토니아 등 해외 대사관 9곳, 국제금융공사(IFC),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등이 참가했다.

IF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혁신하는 3가지 주제, 푸드테크,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주제를 놓고 업계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우승팀을 수상한 대학생 창업대회 예스(Young Entrepreneurs Startup) 데모데이,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최한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한편, 디캠프는 혁신을 꿈꾸는 젊은 창업가를 응원하기 위해 은행을 포함한 18개 금융기관이 8450억원을 출연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3년 3월에 설립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다. 지금까지 19개 펀드로 7297억원을 1853개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고 112억원을 111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했다. /배한님 기자 ericbael1683@

'게이밍의자'로 재탄생한 LG트윈스

듀오백-LG트윈스 콜라베이션



LG트윈스와 콜라베이션한 듀오백 GI TWIN 게이밍 의자.

의자 전문기업과 LG트윈스가 만났다. 듀오백은 LG트윈스와 공식 라이선스 협약을 통해 개발한 프리미엄 게이밍 의자를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듀오백과 LG트윈스가 콜라베이션한 게이밍의자는 LG트윈스의 유니폼을 모티브로 착안해 디자인했으며, 헤드 쿠션 앞뒤로 로고 엠블럼이 자수로 새겨져 있어 팬들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싶도록 디자인했다.

듀오백 게이밍의자는 저가형 중국산 제품과는 달리 고급 PVC가죽소재에 100% 국내 생산으로 제작됐으며, 기존

의자보다 두꺼운 폼을 사용하고 110mm의 두꺼운 좌판 쿠션과 최적의 틸팅 각도를 제공해 착석 시 머리와 허리를 편안하게 지지해줌으로써 장시간 게임에도 허리의 부담을 덜어준다. /김승호 기자

'수출 유망 중소기업 사업' 참여 中 中 中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14일부터 '201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실적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마련됐다. 서울중기청은 올 상반기 104개의 중소

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수출마우처 사업 등을 지원받았다.

이번 하반기에도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해당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도울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